

국내 소식

상공자원부 직제 확정후 정식출범

정부는 지난 3월4일 국무회의에서 상공부·동력자원부를 통합한 상공자원부 직제·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자원·에너지담당 차관보를 신설하고 동자부의 기획관리실, 공보관, 감사관, 비상기획관 등의 중보조직을 폐지하며 정원을 69명 감축(1천1백23명, 통합전 상공 7백37명, 동자 4백55명)등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상공자원부는 상공부의 현직제와 동력자원부의 에너지정책실을 에너지정책국으로 하고 광무국은 자원개발국으로 흡수한 상태로 통합, 자원분야를 담당하는 제3차관보를 포함해 모두 3명의 차관보와 1개실, 13개국, 4개관, 68개과, 11개담당관 및 9개 소속기관에 1천1백23명의 정원을 보유하게 되며 에너지자원정책은 1실4국23개과에서 다루게 된다.

한편 전력국은 유일하게 변함없이 전력정책·수급·운영·입지·원자력발전·연료과 등 6개과를 존속시켰으며, 상공자원부는 3월6일 현관식을 가지고 정식 출범했다.

한전, 하계 전력수요관리 강화

한전은 올여름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수요관리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요금 구조조정을 통한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를 개선하고 고효율 절전기기 보급을 위한 장려금 지급제도 도입 및 우수 절전건물에 대한 요금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신규건물에 대해 빙축열 등 냉방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신규설치자 및 기기제작자의 금융 및 세계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하계휴가조정요금제도 등 기존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력관리판매제도의 정착을 위해 수요예측자료를 전산화한 수요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계

약전력 1만kW이상 대수용가의 수요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해 나가면서 전기의 합리적 사용 유도책으로 전기설비 에너지진단 실시 및 절약기술 보급확대, 전기다소비 대형건물의 절전대책 추진, 전기소비절약 및 합리적 전기사용법에 대한 홍보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전은 금년 전력수급전망이 공급능력 2천5백2만1천kW에 비해 하계 최대수요 2천2백50만kW가 예상됨에 따라 2백52만1천kW(예비를 11.2%)의 예비전력보유로 다소 여유가 있지만 적정예비선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 이같은 수요관리 강화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금성계전, 한전에 전자식 전력량계 공급

금성계전(대표 : 성기설)이 한전의 전자식 전력량계 공급자로 선정되어 올해 1,100대의 전자식 전력량계를 공급하게 되었다.

전자식 전력량계는 단순히 전력사용량만을 나타내 주는 기존의 기계식 전력량계와는 달리, 유효, 무효, 피상 전력량을 비롯한 각종 전력 데이터의 측정 및 활용이 가능하여 전력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고, 전력사용량을 세분화된 시간대별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단계요금제도의 실시에도 꼭 필요한 다기능, 정밀 전력량계다.

특히 Setting된 시간대별로 부하를 측정하는 Demand Meter기능을 가지고 있어 피크타임의 전력소비를 수용가가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원격검침이 가능하여 한전에서는 전력수요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등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인 제품이다.

한전은 전력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피크타임의 전력수요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시간대를 세분화하여 시간대별 전력요금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다단계전력요금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올해안에 5천kW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대규모 수용가에 대해 전자식 전력량계를 보급하고 적용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계단신



전자식 전력량계의 수요도 크게 늘어 금성계전은 향후 5년에 걸쳐 10만대가량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성계전은 금년내로 General Electric사와 전자식 전력량계에 대한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의 국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별회원사 소식

의제전기학원, 신간도서 발간

의제전기학원(원장: 정용기)은 최근 지철근·정용기 공동저술의 「최신 전기설비」를 출간했다.

「전기설비」의 이번 최신판은 전력부하설비, 전원설비, 배전설비, 반송설비, 정보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관계법규 등에 관한 내용을 8개장에 걸쳐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신축되는 빌딩, 아파트 등 대형 고층건물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편리성 유지, 방재기능강화를 위해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최신 전기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전기설비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상세히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사 및 전기공사기사 시험의 참고서 시설관리의 안내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방림, 베트남공장 준공

(주)방림은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방림 베트남(주)공장을 지난 3월25일 준공했다. 베트남 빈푸지역에 총1천2백만달러를 투자해 건설한 이 공장은 3천6백추의 방직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생산제품을 모두 국내에 들여와 재가공한 뒤 수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초미니 디스크플레이어 개발

삼성전자는 지난 3월18일 CD수준의 고음질로 디지털 음을 재생하고 녹음도 가능한 미니 디스크 플

레이어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미니 디스크 플레이어는 디스크 직경이 6.4cm로 12cm인 CD보다 훨씬 작으며 외부의 충격에도 음의 떨림현상이 없어 휴대시에도 고음질의 디지털 음악을 즐길 수 있다.

해외소식

일본관서전력, 빙축열 히트펌프 무하관리효과 거뭄

일본 관서전력은 빙축열 히트펌프가 전력피크를 줄이고 부하를 야간으로 이동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서전력은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빙축열을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최대 전력량을 크게 줄였으며, 공조시스템에 대한 투자비는 전기요금 절약효과로 인해 4년6개월만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듈시스템으로 설계된 고전압 테스트기 개발

고전압 측정은 물론 고해상도 충돌을 분석할 수 있는 테스트기가 최근 미 해플리 테스트 시스템사에 의해 개발됐다.

이 제품은 모듈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온라인 보조테스트기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미국 타임마크사, 교류릴레이 개발 시판

미국 타임마크 코퍼레이션은 최근 교류릴레이 「모델261」을 개발, 시판에 나섰다.

이 교류릴레이는 5년간 품질보증이 가능해 같은 종류제품에 비해 보증기간이 가장 길다.

여러형태로 접속이 가능하며 3~4개의 펌프에 적용되기도 한다.

이 제품을 개발한 타임마크사는 전품목에 걸쳐 품질시험을 한 뒤 시판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